

# 도시로 흐르는 물의 길 가르 다리, Pont du Gard


글 · 편집실 사진 · 김석철 교수 \_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가르 강을 가로지르는 50km의 수도교(水導橋)인 '가르 다리'는 고대 로마시대에 건설된 50m 높이의 수도관으로 공학적, 예술적 작품이라 평가받는다.

고대 로마인들이 세웠던 건축물 중 2,000년이 넘는 풍상을 이기고 지금도 가장 완벽하게 남아 있는 건축물인 이 다리는 가르 강 건너편 50여 km에 있는 수원지에서 당시 번성했던 로마의 식민도시 '님(Nimes)'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세운 수로 다리다. 3층의 아치로 되어 있고 수로가 있는 부분은 맨 꼭대기의 아치 위인데, 1km당 38cm의 기울기로 건설되었다고 하니 그 정교함이 놀랄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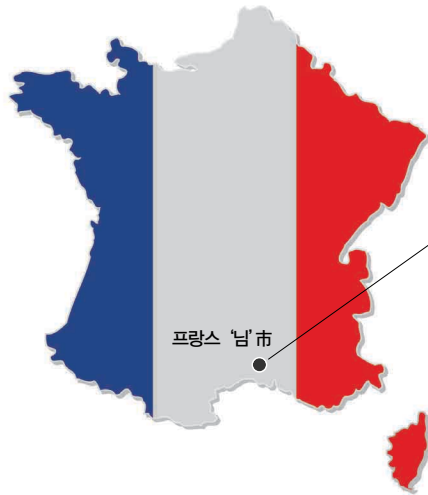
가르 계곡을 가로지르는 물의 다리, 가르는 로마의 식민도시 님에 물을 공급하던 생명의 다리로 폭풍과 공생하는 구조를 통해 2000년 넘게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심산유곡에 최고의 미술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 수로에 로마인들은 찬란한 문명을 담았다.

이 다리는 로마의 공학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수로구조물 중 하나로, 2톤 이상의 석괴들을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40m가 넘는 높이로 구축하였고, 수로가 설치된 맨 위의 작은 아치들은 그 밑의 아치 하나당 세 개 혹은 네 개씩 짝을 지어 서 있어 활기 있는 리듬을 만들어내며, 이는 로마건축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 수로의 완성으로 '님'의 주민들에게 하루 100갤런의 물을 공급하였으며, 이러한 시설은 로마의 지배 하에 들어온 종족들에게 로마인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문명의 혜택을 상기시켜 주었다.

시작은 단순한 필요였고 장소는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산 계곡이었으나,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었다. 계곡 사이의 강과 산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선 수로의 장려한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와 같은 감동을 주기에 한치의 아쉬움이 없다. 







로마시대 수로 가르 다리(퐁뒤가르 : Pont du Gard)

- 가치 1985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위치 프랑스 남부 님(Nîmes) 시(市)
- 규모 길이 275m, 높이 49m의 수도교(水道橋)



고대 로마 공학이 만들어낸 대표 수로구조물, 가르 다리